

# “문화적 역동성 광주 만한 곳 없어 유유자적 자연 가까운 생활 매력”

## 예향서 살아보니



### 1 안톤 솔츠·정유진씨 부부

“문화적 역동성이 있는 곳은 광주만한 데가 없어요. 광주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이들과 동참하고 싶고,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사람이 좋고, 한국의 불교문화가 좋고, 태권도가 좋아 20여년전 홀로 한국으로 건너온 독일인 안톤 솔츠(41·코리아 컨설츠 대표)씨는 광주에서 제2의 인생을 맞고 있는 광주시민이다. 2003년 조산대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광주로 내려온 그는 2004년 정유진(40)씨와 결혼한 후 올해로 10년째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솔츠씨에게 광주는 매력적인 도시다. 본인은 물론 아내 역시 광주와 전라도에 연고가 없었지만 광주를 택했다.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4시간을 거리에서 보냈어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니 제 인생의 25%를 이동시간으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보내는 게 소중한데 말이죠. 그런면에서 광주에서의 생활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서울도 물론 매력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생활을 하기에는 지방이 더 적합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만이 아닌 불교나 무술,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죠. 자연과도 가깝고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어 좋았어요.”

아내 정유진씨에게도 ‘예향’ 광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적합한 도시였다. 문화기획자인 정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콘스탄탈레 광주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기도 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광주가 예향,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요. 쉬운 목표는 아니지요. 광주의 실제적인 바탕과 예술인들의 생각이나 활동에 공명점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독일인 안톤 솔츠(오른쪽)와 정유진씨 부부가 ‘예향’ 광주에서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예술가에 기회 많고 관련사업 타 지역 모범 또 문화전당, 10년후엔 황금알 낳는 씨앗”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예술가들을 위한 삶의 환경이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관련 사업이 시행되는 건 타 도시의 예술인들이 분명 부러워 할 만한 점입니다.”(정유진)

솔츠씨는 현재 추진중인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기대도 컸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시에 문화적으로 역동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이나 컨텐츠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인들이 모이면서 굉장한 힘이 만들어지겠지요.”

솔츠씨 부부는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지난해 8월 문화전당 인근에 카페를 오픈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우연히 찾다가 전시까지 감상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매력이 있을까요.”

그는 이곳을 ‘솔츠앤유 갤러리’라고 이

들을 불렀다.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고 문화적 생산력이 높은 예술인들이 광주에 머무르게 하고 싶었다. 오는 10일부터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연숙 작가의 개인전이 시작된다.

솔츠씨는 광주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의무감을 갖기를 당부했다.

“예술은 관심만 있다면 점점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전시나 공연이라면 발품 팔아서 찾아가는 자세도 필요해요. 예술은 배고픈 문화라고도 하잖아요. 예술을 생산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이들도 문화에 대한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는 문화도시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을 계기로 시민들이 품팔 물친다면 10년 후 ‘황금알을 낳는 씨앗’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사진=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 최연소 합격 조봉초 3년 남린양

### 호남예술제 저학년 부문 최고상 출신...7월엔 독주회 예정

“어, 무대에서 연주할 때 하나도 안 떨리는데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연주하는 게 재미있어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남린(10·조봉초)양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청하며 ‘떨리지 않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최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만난 남양은 지난 2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 앞에서 연주했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들려줬다. 정경화씨 팬클럽 회원인 남양은 서울에서 열린 팬클럽 모임에서 연주를 했고 정씨로부터 “음감이 아주 좋다”는 평도 받았다.

금호아트홀은 남양이 제4회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을 봤던 곳이기도 하다. 남양

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참여한 이번 오디션에서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최연소로 합격했다. 남양은 2학년이었던 지난해 열린 호남예술제 저학년 부문에서도 최고상을 수상했다. 보통 3학년이 최고상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호 오디션에서는 헨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호남예술제에서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4번 1악장’을 연주했다.

금호주니어콘서트와 호남예술제 심사를 모두 맡았던 이형석 전남대 교수는 “나이는 어리지만 음감이 있고, 테크닉도 좋아 발전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양은 3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웠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엄마 박은(42)씨는

아이가 피아노에 흥미를 보이자 이듬해 바이올린을 시켜줬다. 자세는 엉망이었지만, 음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선생님의 칭찬이 이어졌다. 6살 때부터 이항희씨에게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았고 1년이 채 안돼서 소년한국일보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남양은 이번 오디션 합격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에서 열리는 제32회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도 준비중이다. 또 7월에는 광주 오디션 합격 부상으로 유·스퀘어문화관에서 개인 독주회(30분)도 갖는다.

“바이올린이 어떨 때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서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아픈 친구들에게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연습벌레인 남양은 바이올린과 함께 할 때가 제일 즐겁다고 말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남린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소리꾼 김송 ‘춘향가’ 완창무대

### 6일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소리꾼 김송 판소리 완창무대가 6일 오후 4시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김세종씨 ‘춘향가’를 들려준다. 김세종씨 ‘춘향가’는 동편제의 한가락으로 양반적 취향이 많이 가미돼 우아하고 섬세한 점이 특징이다.

목포 출신으로 여섯살 때 판소리에 입문한 김씨는 전남예고를 거쳐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으로 재직중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

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남원춘향제 판소리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에서 오정해가 맡았던 주인공 ‘송화’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기도 했다.

성우향·박송희 명창을 거쳐 지금은 송순

섭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고 있다.

고수는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인 김성수씨 가 맡는다. 문의 063-620-22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유·스퀘어문화관 15일까지 디지털 사진 공모전

유·스퀘어문화관은 15일까지 ‘추억과 행복’을 주제로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인물, 사물, 풍경 등 소재에 제한은 없고 추억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나

행복한 세상을 향한 희망 메시지를 담은 자유사진이면 응모가능하다.

유·스퀘어문화관은 각 부분별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작 3점 등 모두 26점을 선정, 입상자들에게 문화상품권과 유·스퀘어문화관 공연 초대권, TGI 시식권, 영화

관람권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상작들은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작품은 디지털이미지(JPG, JPEG) 파일로만 접수를 받으며,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다. 문의 062-360-84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CJ 헬로비전 www.cjhellotv.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tv ▶ 헬로넷 ▶ 헬로폰 = **SAVE 최대 56%** ▶ 헬로셋 ▶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라

1588-3450

※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